

光则日뢖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 —8111 kwangju.co.kr 제20626호 1판 (음력 9월 29일)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수시·정시 대입일정 일제히 일주일 순연

21일까지 고사장 재통보 12월 12일 성적 통지 추가모집 전형기간 줄여 광주·전남교육청도 후속대책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포항 강진으로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수시와 정 시모집 등 대학입시 일정도 일제히 한주씩 연기된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도 수능 실채점, 학부모 입시 설명회 등 일정을 일 주일씩 미루고 수험생 관리대책 마련에 나 섰다. 〈관련기사 2·3·6면〉

교육부는 오는 주말 사이 학교별 안전진 단을 거쳐 수능 이틀 전인 21일까지 포항 지역을 포함한 전국 수능 수험생에게 고사 장을 통보할 계획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애초 이날 수능 직후 진행할 예정이던 대학별 논술·면접 등 수시 모집 일정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수시모집 일정을 일주일씩 연기하고, 수능 시험 이후 이의신청과 정 답 확정 등 일정 또한 일주일씩 순연하도 록 하겠다"며 "(수능)채점 기간도 하루 단 축해 12월 12일까지 학생들에게 성적을 통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시 일정도 일주일 순연하되 추가 모집 일정을 조정해 대학 입학과 학사일정 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국 고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늦어도 21일까지 수험생에게 고사장을 다시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포항을 비롯해 지진 피해가 큰 지역 외에 서울 등 타지역 수험생의 경우 본래 자신이 시험을 치를 예정이었던 고사장에서 그대로 시험을 볼 가능성이 크다.



다시 '수능 D-7' 경북 포항에 발생한 지진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된 16일 광주시 동구 광주고등학교 정문에 '수능시험 D-7'이라는 입간판이 놓여 있다. 수험생들은 이날 일주일 전으로 수능시계를 돌린뒤 수능 교재를 다시 펴들었다.

교육부는 또, 시·도 교육청별로 전담반을 구성해 고사장 상황을 계속 점검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수험생들이 이미 발부받은 수험표를 잘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16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수능답안지 보관장소 경비 강화를 비롯한 85개 시험장 안전점검, 고교 1·2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 연기 등 별도의 후속 대 책을 마련, 발표했다.

특히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던 수능실채점 학부모 설명회 등 일 정도 일주일씩 미뤘다.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4년제 대학의 대학별 논술고사도 일주일씩 늦춰져 수능이후로 미뤄진다. 애초 대학들은 수능최저학력 기준 적용 등 수시모집 전형을마무리하고 12월 15일까지 학교별로 합격자 발표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12월 22일로 밀리게 됐다.

당장 16일 오후 수시모집 합격자(1단계 또는 최종) 발표 예정이던 대학들도 이를 미룰 가능성이 커졌다. 수시 등록기간은 다음 달 18~21일에서 25~28일로, 수시 미등록 충원 마감은 12월 28일에서 1월 4일로 미뤄진다.

정시모집도 일주일 늦춰진다. 당초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였던 4년제 대 학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기간중 대학별 사흘 이상씩)은 1월 6~9일로 변경되고, 모집군(가·나·다군)별 전형기간도 모두 일주일씩 뒤로 밀린다.

1월 30일인 정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은 2월 6일로, 2월 14일인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은 2월 21일로 변경된다.

다만, 3월 대학 학사일정 시작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당초 2월 18~25일이었던 추 가모집 전형기간을 줄여 22~26일 시행하 고, 27일에 추가등록을 마감한다는 계획 이다. 전문대학은 현재 진행중인 수시모집 2차 원서접수 마감일을 당초 21일에서 28 일로 일주일 연장한다.

_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발표명령자·희생자 수 5·18 모든 것 담긴 '안기부 백서' 찾아라"

국정원 퇴직간부 제보 5·18연구자 첫 공개

국회 출석 서훈 국정원장 "백서 존재 확인 못해 5·18 자료 특조위 전달"

"안기부의 '광주사태 백서'에 발포 명령자 등 5·18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파기지시가 내려졌지만 정보기관의 특 성상 몇질은 반드시 남아있을 것이다. 꼭 찾아내 마침표를 찍기 바란다."

5·18연구자 A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을 국정원 퇴직간부라고 소개한 인물이 내게 전화를 걸어와 '안기부 광주사태 백서'의 존재사실과 내용에 대해 알려왔던 사실을 처음 공개한 다"고 16일 광주일보에 밝혔다.

A씨는 "당시 그가 (국정원 퇴직간부) '5·18왜곡이 극심한데 당신들 정말이지 고군분투한다. 나도 고향이 여기(호남)다. 3~4권짜리 백서에 다들어있다. 꼭 찾아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며 "오랜 연구경험상 제보의 신빙성이 무척 높았지만 여대 확보하지못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문했다 는 별도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국방 부5·18특조위도 최근 이러한 내용을 입수하고서 이른바 '안기부 광주사태 백서'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정 원 퇴직간부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현 재 5·18관련 군(軍)자료 대부분이 '조 작의 세탁기를 통과했다'는 말이 5·18 특조위 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오염된 데다, 군 내부에서 양심선언이 이뤄지 지 않은 상황에서 '발포명령자·518희 생자 숫자'등 핵심 의혹 규명의 열쇠 가 백서 안에 담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5·18특조위 관계자 역시 "신군부당시 보안사가 만든 '제5공화국전사'보다 안기부 백서가 그 내용이 더 구체적이고 신뢰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일반의 생각과 달리 신군부가 만든 5공전사 역시내용이 신뢰할 만하나, 5·18관련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핵심을 비켜간 측면이 있다. 반면 안기부 백서는 파기지시가 내려질 정도로 핵심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자 A씨가 전한 '안기부 광주사태 백서'와 안기부(2국장)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5·18진상규명 대응을 위해 지난 1985년 꾸려진 '80위원회'가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백서'가 동일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5·18특조위는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전두환 정권 당시 안기부 주도로 80위원회가 만들어진 사실과, 백서 발간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은 확인했으나 백서 존재 유무는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국정원에 '광주사태 백서' 보존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은바 있다.

안기부 백서와 관련,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예산안심사에 출석, 국민의당 김동철의원이 "518특조위가 안기부 백서 확인요청을 했는데 알고 있나. 국정원 자체적으로 518 관련 조사를 확인했느냐"는 질의를 받고 "국정원이 갖고있던 5·18관련 수천쪽에 달하는 자료를특조위에 제공했다. 그러나 백서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포항 여진 규모 3.6 등 45차례…부상자·피해 늘어 산림청 땅밀림현상 현장점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 됐던 16일 경북 포항에서는 규모 3.0 이상 의 비교적 강한 여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분 42 초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 지역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6.12도, 동경 129.37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8㎞다. 기상청은 이 지진을 전날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여진으로 파악했다.

여진은 본진 이후 계속 이어져 만 하루가 지난 오후 3시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오후 3시까지 이날만 12차례 땅이 흔들렸다. 앞서 전날 본진의 여진은 16일 오후 3시 현재 총 45회 발생했다. 이 가운데 4.0~5.0 미만이 1회, 3.0~4.0 미만이 3회, 2.0~3.0 미만이 41회였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계속 늘고 있다. 이날 포항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 등에 따르면 부상자는 오전 11시 기준 총 62명으로 집계됐다. 이재민은 153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진 피해액도 69억여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사유시설 피해가 1213건으로 45억1100만원, 공공시설은 134건에 24억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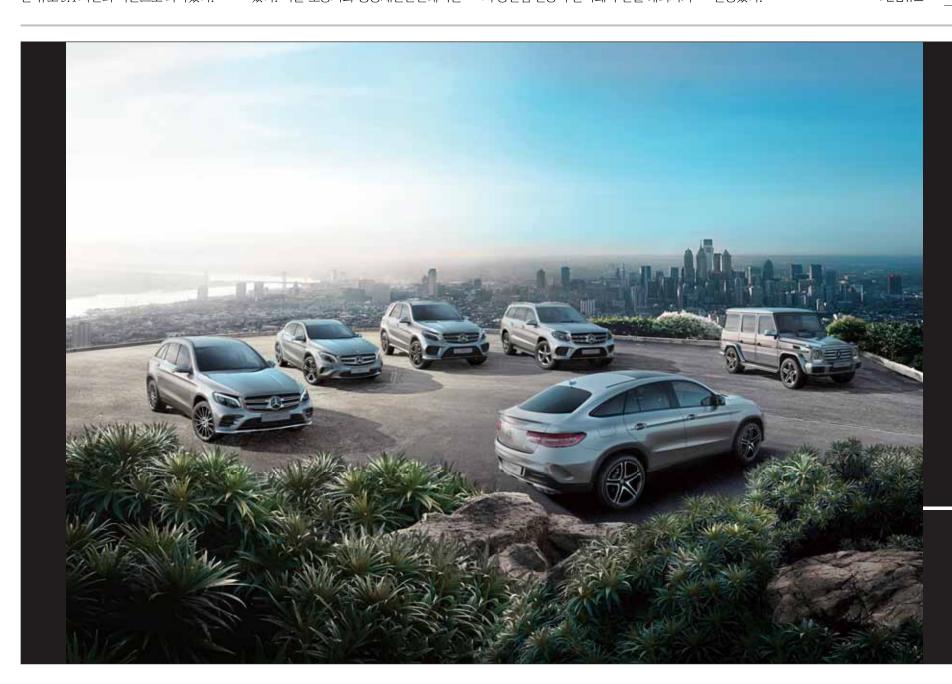
한편, 산림청 산사태 예방지원본부는 지 난 15일 경북 포항 지진 발생으로 산지에 서 땅밀림 현상이 관측돼 주민을 대피시키 고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이날 밝혔다. 산 림청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 109-2에 설치된 산림청의 '땅밀림 무인 원 격 감시시스템'이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3시 22분까지 5분 간격으로 측정한 결과, 6.5㎝의 증가 변동을 감지했다. 이는 일본 국토교통성 땅밀림 기준치 상 출입금지 수 준에 해당하는 큰 변동이라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수능 연기…학교 교실 가보니 ▶6면

新팔도유람-경북 영양 ▶18면

다시보는 KIA-4번 타자 최형우 ▶20면





The Completion of SUV Line up

G-Class, GLS, GLE, GLE Coupé, GLC, GLC Coupé, GLA 메르세데스벤츠 SUV 라인업의 완성.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와 함께 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선성자동치(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Tel.062)226-0001

경우 등 인 표준 언 마 및 등급

Wercoles-Mo (GL 45 4 MATC (배)량 1,991cc, 공자중량 1,640kg, 자동7단, 복합만바 9,1km/(도심만바3,3km/(고속도로만바 10.4km/4), 등급등급, 복합CO2
배출량 1920/km - GL 2204 4MATC (배)량 1,916cc, 공자중향 1,650kg, 485代), 복합만바 1,29km/(도심만바1,16km/(교속도로만바 15,1km/4), 등급공등급, 복합
CO2mlæ경 146kg/km - GL 2504 4MATC (배)량 2,145cc, 공자중량 1,99kg, 水물하면, 사람만바 1,29km/(도심만바1,16km/(교속도로만바 15,1km/4), 등급공등급, 복합
CO2mlæ경 151kg/km - GHC 2504 4MATC (대)량 2,29kcg, 공사용량 1,99kg, 자통양 1,9km/(도심만바1,1km/(도심만바1,1km/4), 등급공등급, 복합
(지) 등급 2,45kg - Mercoles-Mo (GL 43 4MATC (배)량 2,29kcg, 공사용량 1,99kg, 자통양 1,8km/4 18,1km/(도움만바1,3km/4,1km/4), (교) (사용 1,45kg - 1,45k